



바움디스트리, 남원시에 전기난로 100대 기부

남원시는 지난 1월 17일, (주)바움디스트리(대표 양재준)에서 전기난로 100대(한기액 495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양재준 대표는 남원이 고향으로, (주)바움디스트리는 인천에 사업체를 둔 전자상거래회사로 아직은 신생기업이지만 빠르게 입지를 다지며 꾸준히 성장 중인 기업으로, 이번 기부는 고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다.

양재준 대표는 “고향 남원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다.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선식 남원 부시장은 (주)바움디스트리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부에 주신 전기난로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함께 더 따뜻한 남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행정동우회, 성금 500만원 기부

남원시는 지난 18일, 남원시 행정동우회(회장 이광우)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성금 5백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이광우 회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기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광우 회장은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행정동우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선행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행정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7일,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활동은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주택 화재 피해 감소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로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 분위기 조성과 자율 설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를 의미하며, 소화기는 세대 및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구입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 업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3개군 지역아동센터에 상품권 후원

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재능기부 추진 계획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올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7일 무진장지역 아동센터 3개 기관을 방문해 은누리상품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진안군 진안마 이용 지역아동센터, 무주군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누리상품권으로 각 기관별 50만원씩 전달했다.

이양희 지사장은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국산 품종 파프리카 뉴요커 밥상에 오른다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산 파프리카 미국 수출길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지난 16일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국산 파프리카의 미국 수출시장 개척을 기념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인 코파(KOPA) 신형민 대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주) 명동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생산한 신품종 ‘로망스푸드’, ‘베아레드’ 등 총 5.3톤의 파프리카로, aT는 코파를 통해 바이어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단계는 줄이고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산 파프리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 왔다.

이에 2008년 한국-미국 정부 간 검역협상 타결에 따른 시범 수출 이후, 처음으로 항공이 아닌 선박을 통해 성사된 이번 수출은 다가오는 2월부터 뉴욕 등 약 20개 현지 유통매장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aT는 신선하고 우수한 한국 파프리카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은 강진군 강진을 남당리 97-49에 위치하고 있는 칼라 파프리카를 전문으로 생육시켜 생산하는 전남지역 최대 파프리카 전문 농업회사법인이다.

‘탐진들’ 농업회사법인은 ICT를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컴퓨터가 계산하여 작물이 최적의 생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복합환경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첨단의 파프리카 생산농장이자 판매법인이다.

생산량의 42%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58%를 소비하고 있는바, 이번 미국 수출을 시작하여 앞으로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외화 획득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 42만3600여 평의 유리온실에서 연간 2,100톤의 파프리카를 생산, 약 110억 원(2024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상시 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탐진들’ 농업회사법인에서 생산하는 독특하고 싱그러운 향이 있는 노랑 빨강 주황 초록색이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는 선진국에서 특히 선호하고 있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이고, 비타민C 함유량이 레몬의 2배, 오렌지의 4배로 많아 비타민C의 보고이다.

이번에 aT의 지원을 받아 미국 수출 발판을 마련한 명동주 탐진들 대표는 전남대학교 원예학 박사로서 그동안 일본에만 수출을 했는데, 이제 미국으로까지 수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며, 앞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칼라 파프리카를 수출하여 한국의 스마트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선적행사에 참석한 전종화 aT상임감사는 “파프리카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경영비 상승 일본시장 위축 등에 따라 수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아 판로 확대를 통한 수출 의욕 고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 시장 개척의 성과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선별 포장, 홍보·마케팅 등 수출 전과정에 걸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동마케팅 추진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해 농가소득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을 통해 ‘K-MIN’, ‘미네르바레드’ 등 국산 개발 신품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 마케팅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시티장례문화원, 장수사랑상품권 300만원 기탁

장수군은 17일 시티장례문화원(원장 이광용)이 설명절을 맞아 장수군 취약계층 나눔실천을 위해 장수사랑상품권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티장례문화원은 지난해 12월 장수군 장제식장 장의관리업체로 선정돼 보건의료원 장제식장과 장제공설장제식장에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장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체는 최상의 예의로 떠나는 고인을 기리고, 유족들에게도 품격 있는 서비스를 통해 위로를 전할 계획이다.

이광용 원장은 “장수군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쳐 더 많은 사랑을 환원하는 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티장례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탁받은 장수사랑상품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솔라파크, 진안군에 ‘설명절 선물세트’ 전달

(주)솔라파크(대표 윤근성)는 17일 진안군청 군수실을 찾아 18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 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 세트는 식용유, 맛술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3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으로 총 80 박스를 진안군에 전달했다.

군은 전달된 후원 물품을 관내 독거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솔라파크는 지난 2021년부터 진안군의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매 명절마다 백미, 선물 세트 등을 기탁하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

윤근성 대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취약계층 이웃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준성 군수는 “명절을 맞아 우리 지역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오수면 백수흠 씨,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오수면 오산마을 백수흠 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6일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오수면사무소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100만원)을 기탁 했다.

백수흠 씨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한우농장, 복숭아 농사 등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오수면 책소폰 동아리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수면 복지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계획이다.

백수흠 씨는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 겨울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윤미 오수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기부를 통해 코로나 이후 감소 되어 가는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 소선자 도통동장, 경로당 찾아 시정 현안 홍보

남원시 도통동 소선자 동장은 푸른 뱀의 해해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23개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정 주요 현안들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정 홍보는 주요 시정 사항을 홍보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생활민원을 청취하는 취지로 마련 △1인 30만원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한과 행동요령 △남원 누리사민제도 홍보 및 모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분할 산발방치대책 기간 일일 △도통시탈나눔센터 기부물품 상시접수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신·편입생 모집 △남원시-동신산업(주) 투자협약 체결 등 10여개 항목을 전달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 큰 호응을 이끌었다.

소선자 동장은 “민생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올해에도 남원시는 힘 없이 달리고 있다며, 시정에 발맞춰 촘촘하



고 꼼꼼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통동은 1월 20일부터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도통동 게이트볼장에서 지급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명의 기부천사, 남원 대강면에 쌀 20kg 100포 기탁

남원시 대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익명의 쌀 기부 천사’로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20kg 100포를 기탁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운영의 손길을 베풀 것이다.

대강면 이어령 맞춤형복지지원장은 “쌀을 배달하러 오신 분에게 몇 차례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것뿐이라며, 본인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찾아온 쌀 기부 천사 덕분에 대강면은 훈훈해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표 면장은 “익명의 기부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북공동모금회를 통



해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석정웰파크병원, 업무협약 체결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지난 16일 소속 교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석정웰파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유승오 교육장과 원대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여 △교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편의 제공 △상호 봉사활동 연계 △공동발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공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승오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